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괜찮아요?”

2024년 12월3일 밤 열시 반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뉴스에서 대통령 담화로 발표 중이었다. 포고령 1호는 1970년대보다 더 강압적인 내용들이었다. 그 새벽에 가족들과 5·18을 겪은 지인의 안부를 묻게 된 것은 모두가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계엄군과 대치하던 광주 시민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다 잊은 줄 알았다.

5·18로 기억되는 계엄령. 1980년 5월, 필자는 옛 전남도청 근처에 살았기에 어린 시절 끔찍한 국가폭력과 계엄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몸에 각각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사당에서 시민들과 계엄군이 대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땀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실시간 중계되는 위급한 상황을 지켜보며 여섯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를 해도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다.

비상계엄, 그리고 광주시민

명상으로 마음이 단련됐기에 분노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작업할 수 있었다.

그런데 1주일 만에 계엄령 선포와 내란의 속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동시에 국민이 격하게 저항한다. 촛불광장에는 K팝이 흘러나오고 반짝반짝 빛나는 응원봉과 풍자의 깃발을 든 젊은이들의 노래와 합성이 물결치고 있다. 거대한 물결, 이제 대한민국은 흥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세대가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과 탄핵투표를 당론으로 거부한 ‘국민의 힘 해체’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이 추운 겨울 대한민국의 미래를 동시에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시민의 물결은 정치인들이 타고 있는 배를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 힘’이라는 국민을 저버린 정당과 윤석열 정권이라는 배가 곧 뒤집힐 것이다.

더 희망적인 것은 이 콘서트 같은 광장에서 남녀 간의 갈등으로 싸우고 헤어졌던 전연인도 만나고, 젊은 세대가 ‘꼰대’, ‘틀딱’이라 비웃던 6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만나 함께 배려하며 시위를 축제처럼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광장 근처에서 따뜻한 커피와 주먹밥과 어묵을 나누며 그토록 꿈꾸던 대동세상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광장에서 ‘국민 대통합’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드라마틱하게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상을 상징하는 블

루 카펫 위를 걷고 있다. 광장의 전광판으로 한강 시상식을 본 시민들은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교련복을 입고 단팔뺨을 떠다 죽은 문재학, 박용준 ‘소년’이 되살아서 말하고 있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의 물음에, 소년 열사들이 답했다.

당신의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시공간을 떠나서 나를 만나고 있어요. 그들의 양심의 따뜻한 빛에 불을 켜 줄 수 있게 됐어요.

‘1980년 오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뤄졌던 시민자치의 절대공공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 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 있다 살해됐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비껴처럼 알게 됐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연설문 중 나를 울게 한 대목이다.

나는 광주시민이다. 흥하라 대한민국!

社說

당당히 맞서겠다는 ‘尹 담화’ 탄핵정국 분수령 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12·3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고유의 통치 행위라며 2시간 짜리 내란이 있느냐고 강변한 것이다. ‘광란의 갈증’, ‘현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반국가적 패악’ 등의 자극적 표현까지 사용했다. 사실상 선전포고다.

국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직무 정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 탄핵을 해야 한다며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예고했다. 정국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주말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5·18민주광장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광주비상행동 주최로 연일 시국 성회가 열리고 있다. 2차 표결 당일에는 수창초등학교에서 금남로까지 도심을 행진한 뒤 총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민과 학생들은 봉어빵 등 간식을 나누며 1980년 5월 ‘대동정신’을 재현하고 있다.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다짐으로 추운 겨울 날땀을 흘리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

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강제 수사가 시도된 것으로, 그동안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유의 상황이다.

재차 표결이 이뤄질 국회 앞에는 수십만 명이 결집해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여당 국민의힘을 압박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부결된 지난 7일 촛불집회에는 100만명(경찰 추산 16만명)이 모였지만 규모는 더 거세게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던 날 직전 주말에는 230만명(경찰 추산 43만명)이 운집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퇴진과 구속을 외치는 함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을 공식화하는 의원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한동훈 당대표도 보이콧이 아닌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율 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비상행동 측도 참가 인원을 가능조차 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역사 새로 쓰여질 것인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 내년 국비 조속 집행으로 민생 진작해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든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3조3천858억원이 반영됐다. 전년보다 1천412억원(4.4%) 늘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2단계,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자동차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등은 무산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확장,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등은 증액됐다. 전남도는 9조502억원을 확보했다. 2년 연속 국비 9조원대다. 정부안에서 1천574억원(1.8%)이 더해졌다. SOC, 미래 첨단전략 산업 분야 등에서 다수 포함됐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190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9억원 확대, 여수세계 석박람회 개최 지원 32억원 등이다.

앞서 국회는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을 거쳐 처리

된 것은 현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2월 여야 합의의 위해 상정이 부류된 예산안은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뒤늦게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계엄령 후폭풍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불뚱이 튀었다. 광주시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및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국비 사업이 성과를 거두도록 신속히 예산 집행하고, 철저한 행정질차 이행 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 현안들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추경 편성 시 포함되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6년도 국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때다. 민생 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미술학박사

지난 11일 새벽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또한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 동호의 실제 인물은 문재학이다. 그의 어머니 김길자씨는 “우리가 운명으로 투쟁하며 알았지만 국내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을 한편의 소설로 광주의 5월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기뻐했다. 한강은 인간의 고통, 연민, 그리고 생명을 깊이 탐구하며, 문학이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치유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예술이 가진 치유와 연대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예술은 시대적 고통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아가 사회와 인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짊어진다.

이 시대의 예술은 과연 무엇일까. 흔히들 말한다. 예술은 사회와 시대의 거울이라고. 고흐의 그림은 당시를 살았던 이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표현했다. 또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으며, 힙합 음악은 현

소설가 한강이 보여준 ‘예술의 힘’

대 도시 사회의 불평등과 목소리를 담아냈다. 예술이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시대의 정신과 인간 경험을 기록하고, 후세대는 예술을 통해 과거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은 결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시대를 혁신하고 이끄는 에너지도 품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예술의 힘이 작동한다.

얼마 전 서울에 다녀왔다. 고흐, 클림트, 에곤 실레, 그리고 카라바조 등 미술거장들의 작품이 여기저기에서 잇따라 전시됐다. 한꺼번에 이들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은 호사였다. 감탄이 절로 나왔다. 장외적 표현, 소통의 도구라는 예술의 기능 수행은 기본이었다. 앞서 거론한 예술의 혁신성이 도드라졌다. 이들은 한결같이 기존의 표현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이끌어낸 혁신가들이었다. 자신들이 살던 시대의 틀을 깨며 예술적 혁신을 이뤄낸 것이다.

고흐는 강렬한 색채와 붓질로 인간의 내면과 자연의 감정을 담아내며, 후기인상파의 문을 연 인물이다. 클림트와 에곤 실레는 비엔나 분리파 운동을 통해 당시 사회가 급기시하던 주제와 인간의 감정을 대담하게 탐구하며 모더니즘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카라바조는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바로크 미술의 길을 닦으며 인간의 고뇌와 영적 갈등을 생생히 표현했다. 이들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을 간단히 위

어남었다. 기존의 가치관과 규범을 도전하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끌어내는 혁신을 일궈낸 것이다.

이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학이 가진 힘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한강의 작품은 폭력과 상처, 연민과 치유라는 보편적 주제를 통해 한국이라는 특정한 맥락을 넘어서 세계적 공감을 얻어냈다. 그의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으로, 개인과 사회가 겪는 아픔과 치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고통받는 인간에게 공감과 위로를 제공하며,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취이자, 예술의 보편적 힘을 입증한 일이다.

예술의 나아가갈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다. 단순히 미적 만족을 제공하는데 탈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대와의 소통이 필수다.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예술의 지향점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창작은 인간의 경험과 상상력을 확장하고, 공감과 혁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를 넘어야 하는 존재다. 사회와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예술의 힘이 우리의 내일을 밝게 비추길 동력인 것이다. 그걸 잊어서 안된다.

독자투고

최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신호와 차선을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또한, 도심 곳곳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륜차 각종 ‘불법 행위’ 만연

경찰에서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이륜차 불법 행위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속도 위반이 8만원, 신호 위반이 4만원으로 가장 큰 범칙금이지만, 단순 기준도 모호하고 오토바이 특성상 정지시키기도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이륜차의 인도와 차선을 넘나드는 난

폭 운전에도 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대형사고의 위험성마저 상존하고 있어 우려된다.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이다. 신호위반·무면허·무등록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만큼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전동휠체어 ‘교통약자’ 안전사각지대

전동휠체어를 타는 보행 약자들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상황이다. 법적으로 보행자로 분류돼 있지만, 인도 환경이 열악해 자연스레 차도로 내몰리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동휠체어가 주로 이용하는 인도 위에는 화분과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갖가지 적차량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때론 불법 주차차량도 종종 보이며, 건강상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기도 힘들 정도로 좁은 공간도 있다.

전동 휠체어·스쿠터 등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한다. 최고속도가 15km를 넘지 못할 뿐더러 크기도 커 도로 주행 시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전동휠체어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아울러 전동휠체어는 바퀴가 작기 때문에 인도 블록 사이에 끼어 넘어지는 안전사고 문제가 뒤따른다. 관계기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행자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덕용·고흥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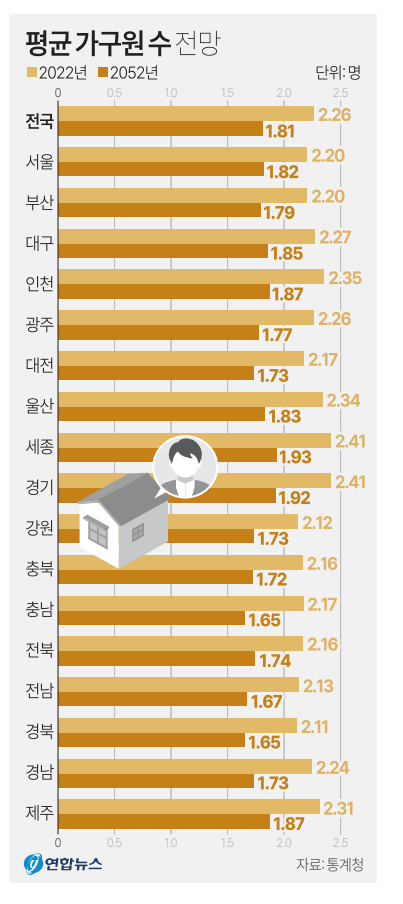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서울 가구수 2038년 정점...30년뒤 모든 시도서 1인가구가 대세

서울에 사는 가구가 203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30년 뒤 평균 가구원수는 모든 시도에서 2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장래가구추계(시도별): 2022-2052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가구 수를 2천163만4천 가구로 추산했다. 총 가구수는 2041년 2천437만2천가구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52년에 2천327만7천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의 가구 수는 2022년 408만1천1가구다. 꾸준히 늘어 2038년 427만6천가구를 정점으로 203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2년에는 366만8천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부산·대구는 2032년, 울산은 2034년 이후 가구가 줄기 시작한다. 2052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가구가 감소세다.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 수도 줄어든다. 전국 평균 가구원 수는 2022년 2.26명에서 점차 줄어 2052년 1.81명까지 감소한다.

가구 유형은 2052년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52년에 강원(45.7%)·충북(44.5%)·대전(44.1%) 순으로 높고, 세종(36.4%)·울산(38.2%)·경기(39.1%) 순으로 낮다. 고령화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또한 늘어난다. 2052년에는 경북(60.2%)·전남(60.1%)·경남(59.3%)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세종도 35.8%에 이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편집국 650-2017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사항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